흔들리는 시대, 불교는 어떻게 중심을 세우는가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세계는 다시 대혼돈이다. 전쟁과 갈등, 경제 위기는 어느새 개인의 마음까지 파고든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선다.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지금 한국불교가 보여주는 변화는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 중심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 답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선명상대회, 봉은사 담선대법회라는 세 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박람회가 문화적 확장을 보여준다면, 선명상대회는 일상 속 수행의 실천을 제안하고, 담선대법회는 수행의 깊이를 더한다.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자기 안으로 돌려세우는 하나의 길을 가리킨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전통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넘어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젊은 세대와 무종교 관람객의 유입은 불교가 특정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삶의 방식과 감수성의 언어로 읽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올해 박람회 사전 등록 관람객은 5만794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1만1187명 수준에서 출발한 행사가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커졌고, 올해 처음 유료 입장으로 전환했음에도 신청이 몰리며 사전 등록이 조기 마감됐다.

이는 불교가 더 이상 종교 내부의 담론에 머물

문화 플랫폼 박람회, 문턱 낮춘 선명상
내면 중심 잡는 수행의 장 담선대법회
하나로 이어질 때 더 큰 시너지 나타나

지 않고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확장은 선명상으로 이어진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시한 선명상은 거창한 깨달음의 언어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한다. 전통 간화선의 맥을 잇되, 대중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수행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들에게 불교는 다시 생활의 언어로 다가가고 있다.

봉은사에서 이어지는 담선대법회는 그 실천을 수행의 장으로 완성한다.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다. 한국불교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최근 불교가 사회적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박람회의 흥행이나 행사 규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바탕에는 종단 내부의 안정과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바깥의 신뢰는 결국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사찰과 종단 부서, 각종 사업과 수행 프로그램이 따로 움직여서는 힘이 분산된다. 박람회, 선명상, 담선대법회가 하나의 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되지 않으려면 성과를 이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연기를 말해 왔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지금 한국불교가 보여주는 문화적 실천은 바로 연기의 현대적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연결은 전략이기 이전에 불교의 본래 정신이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중심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 한국불교가 만들어가는 연결의 힘은 그 중심을 세우는 하나의 길이다.

도시인의 삶에서 선을 묻다

〈禪〉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는 대체로 도시에 산다. 농촌이나 어촌, 산촌에 사는 경우에도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구의 산업화로 본격화된 근대를 우리는 19세기 말 갑오개혁을 통해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불행히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화된 삶을 강요받으면서 20세기를 맞아야 했다. 쌀을 공출하기 위한 도시로 전북 군산이 부상하기도 했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철도를 배경으로 삼아 대전과 천안, 서울, 평양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시화 물결은 공업화 과정과 함께 몰려오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던 집의 딸들이 오빠를 위해 서울이나 부산, 울산의 공장으로 보내졌고, 급기야 온 가족이 짐을 싸들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도시 중심에 들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달동네'를 형성하면서 힘겹게 뿌리를 내려야 했다. 세계적 도시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에 의해 학문적 자격을 부여받은 이 '달동네'는 21세기 들어 재개발을 명목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그 고단하면서도 정겨웠던 거주의 기억은 우리 근대화의 추억으로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도시는 특히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노출돼 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주목

수도권 집중 아파트 중심 도시인 삶
자유·편리에도 불안·우울감에 휩싸여
주체적·공존하는 삶 위해 선 떠올려야

받았고, 이 아파트 중심의 삶은 이웃에 대한 적당한 무관심을 토대로 삼는 도시인의 삶을 상징하게 됐다.

이런 도시인의 삶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유롭고 또 편리하다. 돈만 조금 있으면 손쉽게 필요한 것들을 배달시킬 수 있고, 정 외로우면 반려견이나 사교성을 갖춘 로봇을 맞아 들이면 된다. 그런데도 도시인들의 삶이 불안과 우울감으로 휩싸이고 있다는 연구가 끊이지 않는다. 편리함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됐지만, 특별히 나쁘지 않은 삶임에도 왜 우울감과 불안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에 다시 주목해야 할 필요성과 만나게 된다. 하나는 본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어우러짐을 전제로 할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외로움과 우울감이라는 도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징후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져서 병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인의 철학이자 윤리로서 선(禪)을 떠올릴 수 있다. 선은 삶에 다가와 있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물음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게 화두(話頭)를 붙드는 수행 과정을 일상에 포함하고, 그 과정들은 다시 주어진 일에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선사(禪師)의 높은 차원의 선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도시인들에게도 서늘한 선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음을 깨달을 필요도 있다.

社 說

제주 4·3 불교계 피해 밝혀져야

제주 4·3 사건은 오랜 세월 '말할 수 없는 역사'로 남아 있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음에도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혔고,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불교계가 입은 참혹한 피해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최근 들어 일부 자료와 증언, 그리고 기록 작업을 통해 그 실상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3월 28일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봉행된 '제9회 제주불교 4·3 추모위령재'는 이러한 아픔을 보듬고,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법석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숭고한 발걸음"이라며 불교계 희생자와 피해 사찰에 대한 온전한 진상 규명과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제주가 진정한 참회와 평화의 정토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4·3 사건, 사찰 소실·스님 희생
진실 규명이 상생·화합 첫걸음

실제로 4·3 당시 제주 지역 사찰 80여 곳 가운데 50곳 이상이 소실될 정도로 피해는 참혹했다. 관음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은 토벌대와 무장대의 충돌 속에서 초토화됐고, 스님들은 민중과 함께하다 희생됐다.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했고, 이세진 스님을 비롯한 17명의 스님이 희생됐다. 이는 제주불교의 신행 기반을 크게 흔들었을 뿐 아니라, 민중과 함께 정토를 구현하고자 했던 원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는 오랫동안 공적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종교 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불교계의 아픔은 '기억의 공백'으로 남았다. 최근 발간된 자료집과 증언 채록 작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특히 공식적인 진상 보고서에 불교계 피해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추가 조사와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이 시급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4·3과 같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폭력 범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질 수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회복은 정의 실현의 최소한이다. 기록이 사라지고 증언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시간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울러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희생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가가 입증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생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참회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자비는 진실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 제주 4·3의 아픔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은 과거를 파헤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가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온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국가폭력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용기와 그 위에 서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이사장직인 개인공고

■ 재단명
재단법인 법성재단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화황산로 187

상기 재단의 이사장 직인은
2026년 2월 10일자로 개인하였기에
이후 사용된 전 이사장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70(2026)년 2월 10일

재단법인 법성재단
이사장 법 련

대표(주지)직인 개인공고

■ 사찰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성보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8 (진관동)

상기 사찰의 주지(대표)직인은
2026년 3월 20일자로 개인하였기에
이후 사용된 전 주지의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70(2026)년 3월 20일

성보사 대표(주지) 법 련